

[초대시]

겨레의 청백리 맹사성



시인 장 미 숙

동해의 기상이 저리도 높을까
서해의 노을이 저리도 고울까

설화의 푸르름 살포시 끌어안고
파직과 유배를 벗 삼을지라도
나라위해 홀로 가신
오직 한 길
임 향한 일편단심이라

살랑이는 강호에 배 띄워
역군은 노래하던 청아한 노래 소리
오늘도 아산의 빛 고을에 울려 퍼지는데
기리마 검은 소로 행차하던 고불님의
옥통소 소리
그대 들리는 가

꽃단장 거리를 도롱이 걸쳐 입고
촌로의 모습으로 기리마 황소 타고
지나시다
호통 맞은 청백리 맹사성을
그대 아시는 가

나 어린 열 살에 어머니 세상 뜨자
추모의 정 사모하여 3년의 시묘 살이 마다않고
아버지 세상 뜨자
나랏님 효자정문과 효자비로 추종하니
나라에는 우국충정 부모에겐 더없는 효자시라

평생을 검소와 청렴으로
누옥에 빗물 받아 밤을 지새웠어도
백성을 살피시는 민정에는
천하의 예를 갖춘 진정한 선비시라

천년을 하루 같이 하루를 천년 같이
인고의 세월 속에 옥같이 피어나는
고불님의 나라사랑

설화의 술바람 타고
푸른 쪽빛으로 쏟아지는 고불님의 혼 불을
그대 가슴에 안으소서.

